

회/원/사/탐/방

CHANGWON  
OPTECH

- 대표이사 : 한기수
- 설립연도 : 2003년
- 본 사 : 경남 창원시 내동 456-9
- 주생산품 :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ASSY 모듈, Mobile Phone Camera, Mobile Phone Window.
- 전화번호 : 055)282-0822
- 팩 스 : 055)282-0655

(주)창원옵텍

<http://www.cwoptech.co.kr>

## 축적된 기술력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독보적

### 휴대폰용 카메라 생산을 위한 일괄 시스템 구축

창원옵텍(대표 한기수 [www.cwoptech.co.kr](http://www.cwoptech.co.kr))은 13년간의 반도체 부품 초정밀 금형제작 및 Press 생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창원정밀을 모체로 하여 2003년 말,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 모듈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신생업체이지만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이 업체는 모바일 폰 카메라의 급속한 시장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설계에서부터 금형제작, 성형 및 사출, 코팅, 조립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따른 모든 공정을 One Cycle, Total Solution System을 구축하여 가격과 제품력에서 인정받는 명실공히 부품전문업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렌즈 개발에서부터 금형제작, 성형 및 사출, 코팅, 조립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용 카메라 생산을 위한 일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픽업 렌즈, LCD(액정표시장치) 프로젝터 렌즈, 렌즈 모듈 등 다양한 초정밀 렌즈 생산시스템은 회사의 최강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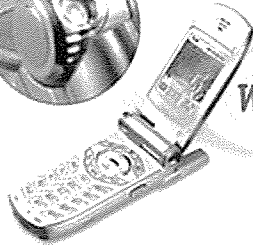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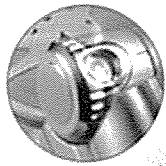
2003년 10월 설립돼 짧은 기간내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데에는 사실상 이 회사의 모체가 되는 창원정밀의 기술적 기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설립된 창원정밀은 줄곧 반도체 부품 초정밀 금형제작에만 집중해 왔다. 따라서 초정밀 금형 및 사출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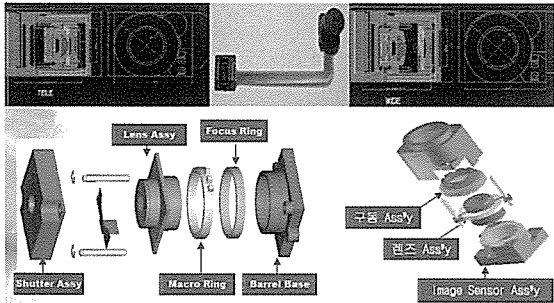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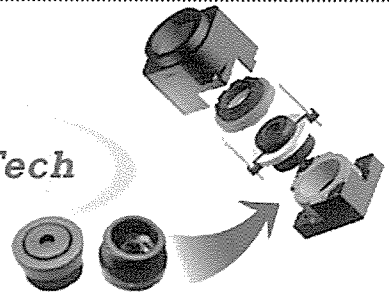
실제 지난 90년대 중반 삼성항공(지금 삼성테크윈), LG전선, 삼성자동차 등의 협력업체로 잇따라 등록된 데 이어 2000년 정공부문에서 삼성테크윈의 최우수 협력업체, LG전선 품질평가 1위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또 그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도 등록됐다.

###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설계능력을 확보

창원옵텍은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4년 4월 공장신축과 사출기 코팅기 등 핵심 설비구축을 마치고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미 본격적인 양산이 이뤄져 국내 주요기업들과 대만 등 해외업체 등을 대상으로



World Best Optical Tech



로 마케팅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가 자랑하는 마케팅 포인트는 먼저 메가급 디지털렌즈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설계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기수 사장은 “구면, 비(非)구면 렌즈에 대한 설계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된 렌즈에 맞는 금형을 자체 설계해 제작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1백겹까지 가능한 다층 코팅 설계기술에 경력도 20년 이상인 렌즈 코팅 전문 엔지니어도 확보하고 있다.

렌즈에 치명적인 불순물 차단을 위해 공장 전체를 청정구역화 하고 있다. 특히 핵심 제품 생산시설에는 외

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4중 차단장치를 마련했으며 보안을 위해 지문인식 출입시스템도 설치했다.

## 생산물량에 있어 세계에서 최고 수준

회사측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서 한걸음 나아가 휴대폰용 LCD 원도부품,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으로 생산제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수 사장은 “창원옵텍은 광학모듈업체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설비규모나 생산물량에 있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계획대로 설비와 인력을 갖춰나간다면 렌즈 단품에서만 월 1,200만 개 생산이 가능하고 렌즈 Ass'y로는 600만 개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4캐비티(Cavity) 기준으로 할때 1,200만매 생산이지만 8캐비티의 금형일 경우는 월 2,400만매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더욱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다부진 창원옵텍은 ‘가격면에서는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5% 낮추고 품질면에서는 반대로 5% 상승시키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취재 / 편집실 윤희진〉

